

이번 FOCUS는 여름철(6~8월) 굴의 생산 및 유통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산자, 중도매인, 굴수협 등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2009. 5. 21 ~ 22)한 결과이다.

여름철 굴 생산량, 각굴 기준 평균 3,400톤 수준

- 굴 율하시설은 대부분 다음 어기초에 생산되며 그 중 일부가 6~8월에 소량 생산된다.
- 최근 5개년 간 여름철 굴 생산량은 지난 2006년산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3개년 간의 평균 생산량은 3,400톤(각굴 기준) 수준이었다.

〈연산별 여름철 굴 생산량〉

(단위 : M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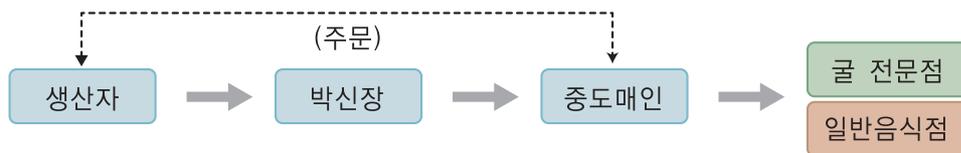
구분	2004년산	2005년산	2006년산	2007년산	2008년산
총 생산량	226,026	252,567	289,746	291,608	277,297
여름 굴 생산량	978	29	4,676	3,870	1,877
비중	0.43	0.01	1.61	1.33	0.68

주 : 여름 굴은 매년 6~8월까지 생산된 것을 의미하며, 각부 중량이 포함된 통계임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여름철 굴 유통, 중도매인이 주도

- 여름철 굴은 중도매인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며, 수협 위판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이 직접 수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시기에 생산되는 굴은 대부분 굴 전문점이나 음식점 등 일반 소비자가 아닌 고정 거래처로 유통된다.
- 한편 여름철에 유통되는 굴 제품의 형태는 각굴 상태로 유통되는 것이 소량 있으나 대부분 박신작업을 거친 알굴 형태이다.

〈여름철에 출하되는 굴의 주요 유통경로〉



여름철 굴, 신선도 유지에 어려움 겪어

- 여름철 굴의 유통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품의 신선도 유지’이다. 이를 위해 수집단계에서는 박신 작업 중 수시로 제품을 수집하고 있으며, 포장단계에서는 박스에 얼음을 어기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굴 수협 등에서도 여름철 굴 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박신장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생산자에게 해수 냉각기 설치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선도 유지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수 포장 용기의 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여름철 굴은 반드시 가열 조리하여 먹읍시다.

굴 수산물관측

제163호 | 2009년 6월

2009년 6월 5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 라09578 ISSN 1739-5283 발행·편집인/ 강중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121-270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KBS미디어센터 14층 TEL. (02)2105-4920 FAX. (02)2105-49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주요 양식수산물의 생산, 가격, 수출입동향 등 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매월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관측정보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http://www.foc.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산 굴 총생산량 3만 3,066톤

2010년산 시설은 2009년산에 비해 3% 늘어날 전망

- ▶ 2009년산 굴 총생산량은 3만 3,066톤으로 2008년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경남의 생산량은 작년산에 비해 감소한 반면 전남과 기타지역은 증가하였다.
- ▶ 5월말 잔여시설량은 50만 연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36만 연이 줄어들었다. 특히 전남에서는 작년과 달리 월하시설이 없으며, 경남도 작년에 비해 19만 연 정도 감소하였다.
- ▶ 2009년산 평균 산지가격은 5,831원으로 작년산에 비해 57% 높게 형성되었다. 한편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2009년산 누적수출량은 9,957톤으로 작년산 동기보다 15% 적었다.
- ▶ 2010년산 시설의향 조사 결과, 시설예상량은 2009년산에 비해 3% 늘어난 2,100여 만 연이 시설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굴 수산물관측」은 2개월간 휴간되며, 2010년산 굴이 생산되기 시작하는 9월에 다시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2009년산 「굴 수산물관측」의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양식어가, 유통·수출업체 관측요원들과 수협, 수산사무소 등의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산동향

2009년산 굴 생산량 작년산보다 소폭 감소,
월하 시설량은 작년보다 크게 줄어

6월호에 제시된 월별 굴 생산량은 어기를 마무리하며, 지역별 시설량 등을 재확인하여 보정하였기 때문에 기존 월보(2008년 9월호 ~ 2009년 5월호)에서 추정된 생산량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산 굴 생산량, 3만 3,066톤으로 추정

- 2009년산 굴 생산은 5월 경남의 1,272톤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된 2009년산 굴 생산량은 3만 3,066톤으로 2008년산에 비해 1.8% 감소하였다.
- 2009년산 어기초 굴 생산량은 양성상태의 부진으로 작년 어기초 생산량 수준을 밑돌았다. 그러나 어기 중순 들어 산지가격의 상승으로 양식어가들이 월하량을 줄이더라도 채취를 늘리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체 생산량은 작년산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월별 굴 생산량 추이(알굴 기준)〉



작년산에 비해 경남 생산량은 줄고, 전남·기타는 늘어

- 지역별로 경남의 생산량은 2008년산에 비해 줄어든 반면 전남과 기타지역의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 경남의 생산량은 2만 8,707톤으로 작년산에 비해 7.1%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남의 생산량은 3,968톤으로 25.8%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산에 비해 폐사량은 줄어들었고 어기 중반 들어 비만도도 좋았기 때문이다. 한편 기름유출사고로 작년산 생산이 거의 없었던 충남 등 기타지역은 올해 들어 일부지역에서 생산이 재개됨에 따라 생산량은 작년산에 비해 크게 증가한 391톤이었다.

〈지역별 굴 생산량 추이〉



월하시설량,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

- 5월 말 잔여시설량은 50만 연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 36만 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에서는 작년과 달리 월하시설이 없으며, 경남도 작년에 비해 19만 연이 줄어들었다.
- 이는 어기초부터 이어진 산지가격의 강세현상이 어기 말까지 이어지면서 양식어가들이 월하분까지 채취하였기 때문이다.

〈5월 말 굴 잔여시설량 현황〉

(단위 : 만 연, %)

구분	초기 시설량	5월 채취량	잔여 시설량	잔여 시설률
전국	2,054	88	50	2.4 (4.0)
경남	1,626	88	50	3.1 (4.1)
전남	373	0	0	0.0 (4.3)
기타	55	0	0	0.0 (0.0)

주 : 5m 수하연 기준이며, 기타지역은 생산이 가능한 시설만 포함된 것임
()는 전년 어기의 동 시점 잔여 시설률임

2009년산 양성상태, 예년보다 좋지 못해

- 2009년산 굴의 양성상태는 예년보다 좋지 못했다. 시기적으로는 어기초의 양성상태가 특히 좋지 못했는데, 이는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염류 부족이 주원인이었다.
- 지역별로는 고흥, 진도를 제외한 고성, 거제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양성상태가 부진하였다.

2010년산 시설 수하(垂下)시기, 전남은 5월 하순, 경남은 6월 상순에 시작

- 2010년산 생산시설의 수하는 전남은 5월 하순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경남은 6월 상순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 설치시기는 경남의 경우 예년과 비슷하였으며, 전남은 예년에 비해 다소 일찍 시설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설시기를 당길 때 굴의 작황과 양성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굴 생산량 추이〉



- 한편 충남 등 기타지역은 5월 상순 이전에 이미 시설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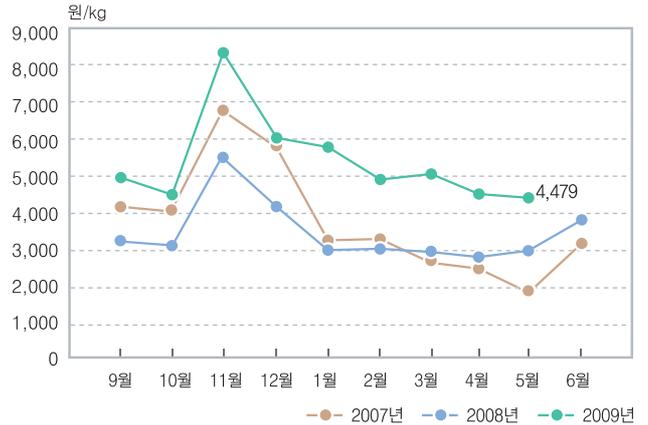
가격동향

5월 산지가격, 전월보다 상승,
금년산 평균 산지가격은 작년산에 비해 57% 높게 형성

2009년산 평균 산지가격, 작년산에 비해 57% 높아

- 5월의 생굴 산지가격은 4,479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0.8% 하락하였으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50.0% 높게 형성되었다.
- 한편 2009년산 생굴의 kg당 평균가격은 5,831원으로 2008년산에 비해 57.4% 높게 형성되었다.
- 이는 어기초 생산량 감소와 김장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강세가 어기 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식품의 위생문제 발생 등으로 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호전된 점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생굴 산지가격 추이〉



자료 : 각 수협(2009년 5월은 잠정치)

〈생굴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

구분	2008년	2009년			
	5월	4월	5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평균	2,986	4,516	4,479	-0.8	50.0
통영	2,972	4,525	4,529	0.1	52.4
고성	3,103	4,441	4,179	-5.9	34.7
여수	-	4,306	-	-	-

자료 : 각 수협(2009년 5월은 잠정치)

도매가격, 작년 동월 대비 30% 높은 수준

- 노량진수산물시장의 5월 알굴 도매가격은 종어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 지난달보다 18.3% 상승한 kg당 6,950원이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30.3% 높은 수준이었다.
- 한편 노량진수산물시장의 5월 굴 거래량은 종어기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비해 65.0% 줄어든 24톤이었다. 이 물량은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19.2% 적은 수준이었다.

〈생굴 도매가격 추이〉



자료 : 노량진수산물시장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조사가격은 kg당 7,516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4.3% 상승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25.6% 높은 수준이었다.

〈생굴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

구 분	2008년	2009년			
	5월	4월	5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노량진수산시장	5,333	5,875	6,950	18.3	30.3
농수산물유통공사(상품)	5,984	7,206	7,516	4.3	25.6

주 : 노량진수산시장은 평균 경락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조사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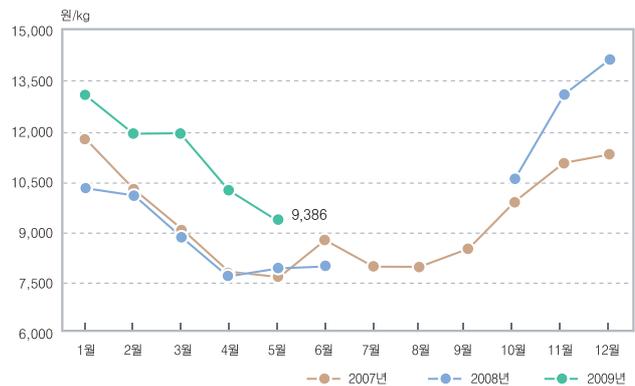
소비자가격, 작년 동월보다는 상승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하락

- 5월 생굴 소비자가격은 kg당 9,386원으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이처럼 소매가격이 도매가격과 달리 5월에도 하락세를 보인 것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굴 소비가 일반 소비자보다는 굴 전문점이나 음식점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19.0%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가격 역시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

-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주지역의 소비자 가격이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부산은 하락하였다. 특히 부산의 전월 대비 가격 하락률이 10.8%로 전국의 가격 하락을 주도하였다. 한편 광주의 소비자 가격은 kg당 10,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작년 동월 대비 가격 상승률도 25.0%로 가장 높았다.

〈생굴 소비자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생굴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 원/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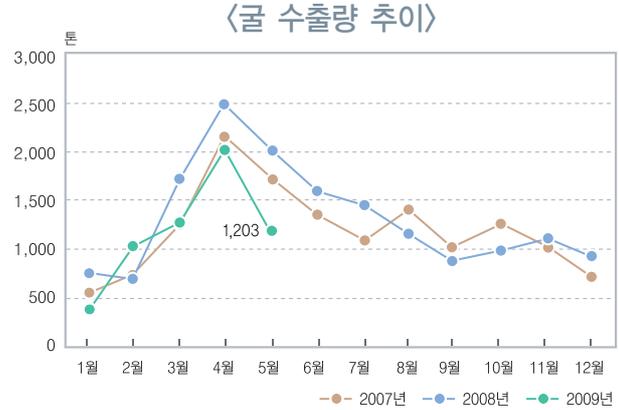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5월	4월	5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전 국	7,888	10,182	9,386	-7.8	19.0	
주요 도시	서울	8,000	9,061	9,368	3.4	17.1
	부산	7,500	10,355	9,234	-10.8	23.1
	광주	8,000	8,682	10,000	15.2	25.0

주 : 전국 소비자가격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청주, 전주의 조사가격 평균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동향

5월 굴 수출량, 작년 동월 대비 40% 감소

- 5월 굴 수출량은 1,203톤으로 지난 달에 비해 41.5% 감소했으며,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40.0% 적은 수준이었다.
- 제품별로는 건조굴을 제외한 모든 제품의 수출량이 지난달에 비해 감소했다. 특히 통조림의 감소폭이 컸는데, 이는 금년 어기 내 지속되었던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가공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 작년 5월에는 수출실적이 없었던 알굴이 올해에는 소량 수출되었다.
- 제품별 수출량은 냉동굴과 건조굴이 각각 632톤, 439톤이었으며, 통조림이 132톤으로 나타났다.
- 한편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2009년산 누적수출량은 9,957톤으로 작년산 동기보다 14.5% 적었다.



주 : 알굴로 환산(마른굴은 5배, 통조림은 2.5배 수율 적용)하였고, 치패는 제외하였음(2009년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수출입통계」

〈굴 제품별 수출량〉

(단위 : 톤, %)

구분	2008년	2009년			
	5월	4월	5월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알굴	-	51	0.1	-99.8	-
냉동굴	708	1,290	632	-51.0	-10.8
건조굴	779	165	439	166.1	-43.6
통조림	519	552	132	-76.1	-74.6

자료 : 상동

해외동향

2009년산 일본 굴 도매가격, 작년산 대비 39% 하락

- 오사카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된 2009년산 굴 도매가격은 작년산에 비해 39.2% 하락한 kg당 728엔이었다. 한편 2009년산 한국산 굴은 2008년 11월 이후 거래가 없었는데, 이는 일본 내 굴 가격이 낮고, 국내 굴 가격상승으로 수출단가가 높았기 때문이다.

〈연산별 오사카중앙도매시장의 굴 도매가격〉

구분	일본산			한국산		
	2007년산	2008년산	2009년산	2007년산	2008년산	2009년산
11월	1,180	1,329	984	885	611	728
12월	1,120	1,334	837	930	647	-
1월	647	1,145	694	-	627	-
2월	860	875	595	-	502	-
3월	791	1,307	532	-	888	-
평균	919	1,198	728	908	655	728

주 : 오사카중앙도매시장의 굴 거래는 전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임
 자료 : 일본 오사카중앙도매시장(<http://shijou.city.osaka.jp/sikyoo/sikyoo.html>)

생산 및 수출전망 2010년산 굴 시설, 금년산보다 3% 증가 예상

2010년산 시설량, 2009년산에 비해 3% 증가할 듯

- 2010년산 시설의향 조사 결과, 총 시설량은 2,118만 연으로 2009년산에 비해 3.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의 시설량이 2009년산에 비해 0.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남과 충남 등 기타지역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 이처럼 양식어가들이 시설량을 금년산에 비해 늘리고자 하는 의향은 월하시설량이 작년보다도 적고, 산지가격 강세가 2010년산 여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2009년산 굴 시설 의향조사 결과〉

(단위 : 만 연, %)

구 분	2009년산	2010년산	작년산 대비
전 국	2,054	2,118	3.1
경 남	1,626	1,636	0.6
전 남	373	416	11.8
기 타	55	66	19.8

주 : 5m 수하연 기준이며,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자료 : 굴 표본어가 설문조사 결과(2009. 5. 24 ~ 27)

6월 굴 수출량, 5월보다 감소할 듯

- 금년 여기 내 높게 형성된 산지가격의 영향으로 가공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재고물량도 예년에 비해 적어 6월 이후 수출량은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굴 가격 유지하려면 시설량 증가 신중히 고려해야〉

- ▶ 2009년산 굴 수급을 종합하면, 시설 감소와 양성상태 부진 등으로 공급량은 감소한 반면 여기 초 김장수요 증가와 대체식품의 위생문제 발생 등으로 굴에 대한 수요성향은 높았다.
- ▶ 그 결과 굴 가격은 최근 10년 내 최고 가격대를 형성하였으며, 양식어가들은 2010년산 굴 시설량을 올해보다 늘리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 ▶ 따라서 다음 여기에 해황여건 및 양성상태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2010년산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굴 소비가 작년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격은 금년산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굴 생산자 및 굴 수협에서는 시설량 증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느 때보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